



정 보

© 2010년도 한국산업간호협회 보건관리자 교육 실시 계획

1. 신규교육

교육과정명	기수	일정	주관	시간	장소/기타
산업보건관리 (개론) - 신규과정	1기*	3월 8-12일	중앙회	3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2기	5월 24-28일	중앙회	3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3기	7월 19-23일	중앙회	3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4기	10월 4-8일	중앙회	3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5기	12월 6-10일	중앙회	3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 실시 완료

2. 보수교육

교육과정명	기수	일정	주관	시간	장소/기타
근로자 정신건강증진 - 보수면제과정	1기	5월 12-14일	중앙회	2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2기	6월 22-24일	부산경남	24H	BTC 아카데미
	3기	6월 22-24일	부산경남	24H	BTC 아카데미
	4기	7월 14-16일	중앙회	2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5기	9월 1-3일	중앙회	2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산업보건관리 (심화) - 보수과정	1기	10월 18-20일	중앙회	2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2기	10월 27-29일	중앙회	2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3기	11월 10-12일	중앙회	2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4기	11월 24-26일	중앙회	2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5기	12월 1-3일	중앙회	2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6기	12월 15-17일	중앙회	2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7기	12월 21-23일	중앙회	2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3. 의료인 면허보수교육

교육과정명	기수	일정	주관	시간	장소/기타
대사증후군 관리와 U-Health Care	1기	하반기 예정	중앙회	8H	미정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1기	하반기 예정	중앙회	8H	미정

4. 산업 전문간호사 보수교육

교육과정명	기수	일정	주관	시간	장소/기타
산업 전문간호사 보수교육	1기	하반기 예정	중앙회	8H	미정

* 의료인 면허 보수교육 과정 : 산업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5. 전문 교육

교육과정명	기수	일정	주관	시간	장소/기타
보건 교육사 전문교육	1기*	1월 8일-9일	중앙회	16H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2기*	1월 15일-16일	중앙회	16H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 실시 완료

* 고용보험 환급 대상 : 교육 시간 16시간 이상

* 상기 교육 일정 및 과정은 협회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0 한국 산업간호 우수사례 경연대회 개최 안내

1. 일 시 : 2010. 7. 7(수) 13:00 ~ 17:00

2. 장 소 : COEX 컨퍼런스센터 301호(지하철 2호선 삼성역)

3. 주 제 :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산업간호 우수사례 경연대회

제 1 부 -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산업간호 추진 사례

제 2 부 - 사업장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산업간호 추진사례

4. 참가비 : 회 원: 20,000원/비회원: 30,000원

(교재 및 자료CD 포함)/우리은행 1005-700-951344 한국산업간호협회

*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 실시되며 오전에는 한국산업간호학회 학술대회가 동일 장소에서 개최됨

◎ “2010년도 국제 산업간호 및 아시아 산업간호 합동 컨퍼런스“ 개최 안내

"ICOHN & ACOHN Jount CONFERENCE 2010"

일시 : 2010년 8월 6일~ 9일

장소 : 일본 요코하마(Workpia Yokohama Japan, Japan)

주제 : Gloval Changes in Occupational Health Nursing

- How Can We Continue to Worker's Health, Safety and Quality of Work Life? -

주최 : Bureau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Japan Society for Occupational Health

의장 : Keiko Kono, PHN, RN, PhD, President of Yokkachi Nursing and Medical Care University

발표초록 접수 : 2010. 1. 8.

연락처 : Icohn & Acohn Joint Conference 2010 Conference Secretariat

Yokkaichi Nursing and Medical Care University

1200 Kayou-cho, Yokkaichi, Mile 512-8045 Japan

Tel : +81-59-340-0739, Fax : +81-59-361-1401

E-mail : secretariat@icohn-acohn2010.com

web site : <http://icohn-acohn2010.com>

중앙회 소식

◎ 2010 산업간호의 새도약을 위한 신년연찬회 개최

2010. 1. 14(목). 09:00부터 17:00까지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5호에서 본회 임원진과 이사, 각역의 지부장 및 임원, 산업보건센터의 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산업간호의 새도약을 위한 신년연찬회'를 개최하였다.

김영희 사무국장의 사회로, 김순례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제 1부 '소규모사업장 국고지원 보건관리 사업의 추진방향은 -2008 국고지원사업 수행결과 평가 보고(이윤정 이사), 2010 국고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이성숙 사무부장)과 각 센터부장이 2010 보건안전센터별 사업계획발표를 하였고, 협회 국고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조동란 사무처장이 진행하였다.

2부 '2010 정부 산업보건정책 사업-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간호 패러다임의 전환-“에서는 '산업재해예방의 활성화'(김봉년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도원장)와 '산업간호협회 2010 서비스업 재해예방사업 참여 전략'(정혜선 교육위원장) 발표가 있었고, 이어 김희걸 부회장이 종합토의를 진행하였다.

종합토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서비스업 안전터하기 사업을 본 협회에
서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조직과 인력의 개편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데 동의
하고, 공단의 구체적인 안이 표면화 되면 그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 “2010년도 한국산업간호협회 제 16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2010년 2월 5일(금) 오후 2시부터 6시 까지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5층 솔로몬 룸에서 2010년도
정관 제 22조에 의하여 제 16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조동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김순례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대신하여 김용순 제1부회장이 축사를 대독하였고, 김윤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의 ‘2010
산업보건정책 및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강연이 있었다.

정기대의원 총회는 김순례 회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김희걸 제1부회장의 대의원 점명 후 감
사보고에 이어 전회의록 낭독과 2009년도 사업시행결과 및 결산보고와 지부 사업보고를 하였다.

금년은 임원개선의 해가 아니므로 임원은 전원 유임되었으며, 이어 2010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을 통과시켰고, 지부에서 건의 한 안건을 포함하여 안건토의를 한 후 폐회하였다.

금년도의 사업계획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에 더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직무보수
교육으로 인하여 교육시행횟수를 대폭적으로 늘렸고 산업전문간호사 보수교육을 처음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금년부터 실시하는 서비스업 재해예방사업에 동참하고 전년도
에 이어 민간단체 재해예방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 2010년도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국고대행 사업 및

뇌심혈관질환예방 용역사업 참여

본 협회 부설 13개 보건안전센터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관할 지도원과 전체 보건관리 국고대행
사업 대상 사업장 15,000개소 중 10,000개소 및 뇌심혈관질환예방사업으로 510개소를 보건관리지
원하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전국의 13개 보건안전센터 보건지도요원의 사업시작 전 교육을 2월
17~18일 양일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실시하였다.

◎ 2010년도 “서비스업 안전더하기 사업” 참여

본 협회는 증가하는 서비스업의 재해감소를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10년도“서비스업 안전더하기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본 협회 부설 보건안전센터 중 경인지역의 4개 센터와 대전충청지역의 3개 센터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인지역본부 및 대전지역본부와 각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총 57,250개소의 서비스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한다.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3월 29일 상기 두 개의 지역본부별로 발대식을 갖고 수행요원들에 대한 사업수행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부 소식

◎ 2010년도 지부총회 및 월례교육 실시현황

지부	지회	내 용
서울	총회	일시 : 2010.1.28 장소 : 서울대 간호대학 408호 참석 : 11명 내용 : 건강검진 사후관리, 임원개선실시
	월례회	일시 : 2010.4.30 장소 : 산업안전공단서울북부지도원 주제 : 비만관리, 예술치료를 통한 스트레스 관리교육 참석 : 17명
부산 경남	총회	일시 : 2010.3.12 장소 :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참석 : 회원44명 내용 : 사업보고 및 운영규정변경
	요청사항	규정안 변경 승인 요청
대구 경북	총회	일시 : 2010.3.12 장소 :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본부 19층 회의실 참석 : 26명 내용 : 서울선언서설명, 창의적 보건교육, 2009사업보고 및 회계결산
인천	총회	일시 : 2010.1.27 장소 : 인하대병원 3층 강의실 참석 : 15명 내용 : 2009년사업보고 및 임원선출, 사업장 응급환자관리
	월례회	일시 : 2010.3.16 장소 : 송도컨벤시아 참석 : 7명 내용 : 안전도시인천만들기 행사(월례교육으로 실시함)

지부	지회		내 용
경기	성남 안양	월례회	일시 : 2010.2.18 장소 : 원광대학교 내용 : 2010 안양지회 보건업무방향 일시 : 2010.3.19 장소 : 삼영전자 건강관리실 참석 : 8명 내용 : 고지혈증관리 일시 : 2010.3.30 장소 : 노동부 안양지청 내용 : 산업안전 보건결의대회실시
광주 전남북		총회	5월에정임
대전 충청		총회	일시 : 2010.3.4 장소 : 대전광역시 간호사회관 참석 : 46명 내용 : 2009년 사업결과 보고 및 2010년 사업계획보고 2010년 산업보건정책방향 설명(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장 이강영) 보건관리자 직무해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최흥구부장)
제주		월례회	일시 : 2010.3.31 장소 : 제주 산업안전보건공단 참석 : 30명 내용 : 지역사회보건 네트워크 형성

한국산업간호학회 소식

◎ 학회 회원가입 안내

학회 가입원서를 학회 홈페이지(<http://www.ksohn.or.kr>)의 학회소식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이나 fax 혹은 이메일로 아래 연락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장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69번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김영임 교수
전화 : 02-3668-4704 Fax: 02-3668-4704 E-mail : young@knou.ac.kr

총무이사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101번지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최은숙 교수
전화 : 053-420-4936, Fax : 053-421-2758, E-mail : eschoi2007@knu.ac.kr

평생회비 200,000원(년 2회 분납 가능), 개인연회비 10,000원, 기관연회비(도서관) 100,000원
예금구좌 : 농협 1165-01-068015 / 예금주 한국산업간호학회

노동계 소식

◎ 정부와 민간기관이 손잡고 중소기업 근로자 보호

- 노동부, 민간기관과 공동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 결의대회 개최 -

‘10. 3. 9(화) 노동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중소기업 공동 산재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6개 지역 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과 민간 안전관리대행기관 대표자, 중소기업 중앙회 및 6개 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지원 우수사례 및 사업장 우수 개선사례를 발표하고, 각 기관별 대표자가 산업재해예방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될 민간 안전관리대행기관과 재해감소 성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부와 민간 안전관리대행기관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금번 행사는 자체적인 안전보건활동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재해가 다발(전체 재해의 약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 노동부에서는 재해발생 위험성이 큰 중소기업 105,000개소를 선정하고, 총 예산 1,512억원을 투입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민간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기술 안전교육 시설개선자금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집중 지원한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을 집중지원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지도과 함병호 (02-6922-0933)

◎ 노동부, 2009년 여성 고용 동향 분석

노동부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재분석하여 『09년 여성의 고용동향 분석』을 발표했다.

‘09년 여성 취업자는 977만2천명으로 전년대비 10만 3천명(1.0%) 감소(‘03년 이후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자수가 증가(3만 1천명)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경기침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소된 여성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가 19만명 감소했는데, 그 중 자영자가 11만

9천명 감소하여 자영업자가 경기침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금근로자는 8만 7천명이 늘어났고 이중 상용직이 9만 7천명 늘어났으나, 상용직 증가폭은 둔화되는 추세이다.

임금근로자 중 여성 상용직 비중이 0.9%p 증가하였고, 남성은 1.9%p 증가하였으며, 임금근로자 대비 임시·일용직 비중은 여성은 전년대비 0.9%p 감소하고 남성은 1.9%p 감소하였다. 임금근로자 중 여성 상용직 비중은 남성 상용직 비중의 2/3수준에 불과하고 임시·일용직은 남성의 1.7배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정부의 희망근로사업 실시,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등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및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24만 9천명이 늘어났고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21만 3천명이 감소하였다.

작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대비 28만 6천명 증가한 1,042만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대수치를 기록했고,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527만 8천명의 약 두배이다. 비경제활동의 사유를 보면 육아·가사가 6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직단념자는 63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6천명(34.0%) 증가하였다.

여성 실업률은 3.0%로 전년대비 0.4%p 증가하였고 남성실업률은 4.1%로 전년대비 0.5%p 증가하였다. 실업자 수에 있어서도 여성 실업자가 30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15.0%) 증가한 가운데, 3개월 미만 구직자가 70.5%로 전년 66.0%에 비해 3.7%p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여성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을 위해서 금년 2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2012년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대상자 요건도 ‘임신·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임신·출산·육아기(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 이직한 여성근로자’로 완화하였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설치시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인건비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또한, 여성 친화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가정 양립형 상용단시간 근로자를 활성화하고, 전국 81개 고용지원센터와 77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실직여성과 구직희망 여성에게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실직여성이 정부지원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지원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금년에 구직여성 160만명에게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그 중 약 36만명(23% 내외)을 취업시킬 계획이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노동부·여성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여성일자리 대책’을 마련한다. 동 대책에는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및 특성별 취업·창업 지원, 생계안정과 일자리 유지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다.

문 의: 여성고용과 최상운(02-2110-7296)

산업보건계 소식

◎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검진」 무료로 받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화학물질, 분진,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이 지원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나 진폐, 난청 등 직업병예방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유해물질을 주로 취급하거나 분진이나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공단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 유무를 확인 및 통보하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노동부가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측정과 검진을 받으면 된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측정과 검진을 담당한 기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측정과 검진내용을 첨부해 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은 측정과 검진결과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한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2010년에는 약 12,000개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하고 약 10만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으로 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업환경측정비용지원 신청은 10인 미만 사업주가 2월 28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으며, 관련문의는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으로 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1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건강하고 작업환경이 쾌적할 때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 산업보건실 송세욱 (032-5100-711)
문화홍보실 김무영 (032-510-0532)

◎ “산업현장 유해화학물질 급성중독 집중관리”

산업안전보건공단, 2012년까지 매년 500개 사업장 선정 ‘3-3-3 기술지원’

산업현장에서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3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예방 대책이 추진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메틸포름아미드(DMK), 메틸에틸케톤(MEK) 등 3대 유해화학물질을 선정하고 ‘3-3-3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3-3-3 기술지원’은 3대 물질별 3대 공정을 선정해 3단계로 집중 기술지원 하는 것을 말한다.

공단은 이를 위해 3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3대 유해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실시한 전국 산업체대상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급량, 노출근로자수가 많은 고위험 사업장이다.

3대 유해화학물질로 선정된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주로 금속 물질의 세척 작업에 사용되며, 디메틸포름아미드(DMK)는 합성피혁 제조나 인쇄 공정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메틸에틸케톤(MEK)은 접착제 생산이나 인쇄잉크 사용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휘발성이 높고, 인체에 해로운 물질은 호흡기나 피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심할 경우 급성중독으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3대 유해 공정은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의 경우 세척, 코팅, 함침작업이며, 디메틸포름아미드(DMF)는 코팅, 침지, 도장 및 도포, 메틸에틸케톤은 혼합, 인쇄, 접착 공정이다.

3단계 기술지원에 따라 공단 산업위생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해당 사업주에게 작업공정별 화학물질 노출현황을 제공하고, 해당 작업에 적합한 맞춤형 개선방법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노출위험이 높은 작업공정의 화학물질 노출량 감소를 위한 개선방법과 취급시 주의사항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며, 사업주가 작업환경개선을 요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이루어진다. 재정지원은 국소배기장치와 같은 환기설비 중심으로 소요금액 50%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내 산업현장에는 약 4만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러한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은 취급공정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올바른 보호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

하다”며, “공단은 2012년까지 매년 3대 유해화학물질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 산업보건실 유장진 (032-510-0717~8)
문화홍보실 김무영 (032-510-0532)

간호계 소식

◎ 올해 전문간호사과정 107개 - 정원 849명, 한림대 노인 - 계명대 종양 신설

올해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으로 2곳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한림대 임상간호대학원 노인전문간호사과정(5명), 계명대 대학원 종양전문간호사과정(5명)을 새로 지정했다.

기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중 일부에서 정원이 변동됐다. 부산대 대학원 노인전문간호사과정은 10명에서 7명으로 줄었고, 연세대 간호대학원 아동전문간호사과정은 6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건양대 가정전문간호사과정, 연세대 가정전문간호사과정, 계명대 중환자전문간호사과정은 올해부터 신입생을 뽑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신설 교육기관을 포함해 총 107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모집정원은 총 849명이다. △가정 = 13개(112명) △감염관리 = 3개(25명) △노인 = 31개(275명) △마취 = 1개(6명) △보건 = 1개(5명) △산업 = 1개(10명) △아동 = 1개(10명) △응급 = 7개(46명) △임상 = 5개(45명) △정신 = 10개(60명) △종양 = 12개(90명) △중환자 = 11개(90명) △호스피스 = 11개(75명).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분야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전문간호사 등 13개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입학하려면 교육받기 전 10년 이내에 지정된 분야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시행한다.

지난해까지 자격시험을 거쳐 배출된 전문간호사는 총 3468명이며,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 = 867명 △감염관리 = 162명 △노인 = 1132명 △마취 = 26명 △보건 = 4명 △산업 = 106명 △아동 = 12명 △응급 = 157명 △정신 = 162명 △종양 = 285명 △중환자 = 345명 △호스피스 = 210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새 집행부 출범 첫 대표자회의 개최 - 간협 재무이사로 윤종필 이사 선출

대한간호협회는 2월 19일 대의원총회가 끝난 이후 곧바로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대표자회의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새 임원,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간호협회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뽑힌 중앙회 이사들 중에서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를 선출했다. 재무이사에는 윤종필 이사가 선출됐다. 서기는 김경옥 이사, 부서기는 하혜정 이사가 맡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오는 3월 임기를 마치게 되는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들에게 그동안 간호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냈다.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지킨다 - 서울형 어린이집 간호사 파견사업 시작

서울형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파견해 영유아의 건강을 돌보는 사업이 시작됐다. 어린이집 건강관리 간호사 발대식이 2월 25일 열렸다.

서울형 어린이집 간호사 파견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서울시가정분과위원회(위원장·김옥심)와 서울시간호사회(회장·박성애)가 협약을 맺고 운영한다. 서울시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확산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간호사 파견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은 시설 중 영아보육률이 높은 20인 이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간호사가 파견된다. 직무교육을 마친 50명의 간호사가 투입된다.

간호사들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한다. 영유아 발달 및 건강사정, 건강기록부 작성 및 관리, 건강 이상 아동 조기발견, 보육시설 종사자와 부모의 건강 및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간호사 휘장을 부착한 유니폼을 입고 활동한다.

박성애 서울시간호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보육시설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면서 “영유아 건강이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어린이집 건강관리 간호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심 서울시가정분과위원장은 “간호사들과 함께 일하게 돼 믿음이 가고 큰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두 단체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간호역사뿌리찾기(1) 한국 최초의 가관식 -1906년 보구여관 우수 간호학생 2명

◇ 사회적 권위의 상징 캡 쓰는 의식 가져

※ 간호역사뿌리찾기는 매월 넷째 주에 발행되는 간호사신문에 연재된다.

이 글에서는 간호사 명칭을 근대에서 활동했던 당시 그들을 명명했던 간호원이라 통일해 서술했다.

1885년 서울 재동에 제증원, 정동에 시병원이 설립되면서 근대 의료가 한국에서 시작됐다. 남녀 내외법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한국 생활을 경험한 선교사들은 여성전문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고, 1887년 미국 북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의 원조 아래 '보구여관'이 설립됐다.

이후 전문성을 갖춘 간호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여성해외선교회는 미시간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9년간의 실무경험이 있는 에드먼즈(M. J. Edmunds)로 하여금 한국에 간호원양성소를 설립하도록 했다.

1903년 3월 보구여관에 도착한 에드먼즈는 준비과정을 거쳐 그 해 12월 간호원양성소를 공식적으로 개교했다. 한국 최초의 간호원양성소에 입학한 학생들은 각 기독교 종파의 의사와 간호선교사들로부터 이론 수업과 실습을 받았고, 이를 통해 기본소양을 쌓아나갔다.

1906년 1월 25일, 그 실력을 인정받은 2명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최초의 가관식이 열렸다. 주인공은 이 그레이스(Grace)와 김 마르타(Martha)였다. 이들은 간호원양성소 설립 이전부터 보구여관에서 병원 일을 도와왔다.

그레이스는 환자로 보구여관과 처음 인연을 맺었고, 마르타는 손가락과 코의 일부가 없는 장애자로 아이들을 남편에게 빼앗긴 후 병원 일을 돕기 위해 고용됐다. 이들은 교육기간 동안 놀라울 정도로 간호원의 역할을 잘 담당했고, 우수한 성적을 거둬 한국 최초로 간호원 캡을 쓸 수 있게 됐다.

가관식은 몇몇 외국인과 한국 여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구여관 진료대기실에서 진행됐다. 대기실에는 한국과 미국 국기가 게양됐고, 오르간이 놓여졌다. 가관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지하고 의미 있게 치러졌다.

먼저 서양인 의사와 간호원들의 합창이 시작됐다. 1885년 한국에 파견되어 이화학당, 보구여관, 간호원 양성소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스크랜턴(M. F. Scranton) 부인의 환영연설이 뒤를 이었다.

성경 봉독과 기도 이후 당시 보구여관 여의사였던 커틀러(M. M. Cutler)가 보구여관의 역사를 발표했다.

에드먼즈가 2명의 간호학생에게 캡을 증정했다. 축하노래와 기도가 이어졌으며, 보구여관의 분원인 볼드윈진료소 여의사 언스버거(E. Ernsberger)와 목사 게일(J. S. Gale)은 간호원의 신성한 역할에 대해 당부했다. 세브란스병원 의사인 에비슨(O. R. Avison)의 기도로 가관식은 마무리됐다.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레이스와 마르타 두 여성은 간호원이 되어 남성의 상징이자 특권으로 인식됐던 캡(관, 冠)을 썼다. 캡을 새로운 삶과 전문직여성의 상징으로 쓰면서 존귀한 존재로 부각됐고, 한국 근대간호의 개척자가 됐다.

1906년 열린 한국 최초의 가관식은 단지 한 교육기관의 행사가 아니라, 해당 관계자와 간호학생들의 노력의 결과와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 축하하는 한국 간호계의 역사적인 자리였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역사뿌리찾기팀 이방원 박사]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보건의료계 소식

◎ '09년 하반기 성인남성흡연율 43.1%로 상반기 대비 증가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하반기 흡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흡연율이 43.1%로 상반기 대비 2.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인 흡연율 현황 : 23.3%로 '09년 6월 대비 1.2%p 소폭 상승

- 남성 : ('08.12) 40.9% → ('09.6) 41.1% → ('09.12) 43.1%

- 여성 : ('08.12) 4.1% → ('09.6) 3.6% → ('09.12) 3.9%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에 주말을 2회 포함하여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다.(표본오차±1.79%, 95% 신뢰수준)

흡연자의 흡연실태를 보면, 담배를 피우는 이유로는 “습관이 되어서”가 59.1%, “스트레스가 많아서”

가 32.6%로 상반기 결과(58.7%, 32.5%)와 비슷하다.

최초 흡연연령은 21.0세로 0.2세 낮아졌고, 하루 한 개비 이상 규칙적 흡연시작연령은 21.8세로 상반기에 비해 지속 흡연자로 발전하는 기간 차이가 줄어들었다.

※ (상반기) 최초 흡연연령: 21.2세, 규칙적 흡연시작연령: 22.2세

현재 흡연자의 68.8%가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그 이유로는 '건강이 나빠져서'가 63.8%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금연 홍보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등 금연지원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학교흡연예방교육, 군·전역 대상 금연지원사업 등을 통해 흡연을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07년부터 '09년 9월까지 약 100만명(총 978,109명)의 흡연자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09년 9월 현재, 4주 금연성공률이 77.9%, 6개월 성공률은 47.6%로 지난 3년간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09년 8월 현재 65개의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버스정류장, 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확산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성인 남성흡연율이 다시 상승세를 타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회 계류 중인 비가격 금연정책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13건)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
 - 흡연의 폐해를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는 흡연경고그림 도입
 - PC방, 공원,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의 전체 금연구역의 지정 및 지자체의 금연조례 제정 활성화
 - 마일드, 라이트 등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을 제한하는 등 담배 마케팅 전략(포장, 라벨,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 담배 관리 및 규제 관련 법제의 일원화
- 20대 흡연율의 증가 및 최초 흡연에서 지속 흡연자로 발전하는 기간 차이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흡연초기 금연 홍보 및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 여성·청소년 금연상담전화 핫라인 운영 및 금연보조 KIT 제공
 - 여성이 주로 모이는 문화센터, 여성이 주로 고용된 사업장(백화점, 대형마트 등) 위주의 금연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실시
 - 상대적으로 흡연율은 높고 소득은 낮은 직업군(운수업,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금연약물 등 금연서비스 지원
 - 직장인 대상 금연지원프로그램 및 민간기관 금연상담 제공 확대
- 청소년 대상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의 강화
- 청소년 대상 스모크프리 캠페인 전개, 청소년 홍보·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학교흡연 예방교육사업 실시

담당자 이선규, 담당부서 구강생활건강과

◎ A형간염 주의 당부, 4월부터 본격 유행 예상

질병관리본부는 수인성전염병인 A형간염에 대한 표본감시결과, '09년 발생건수가 총 15,041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91%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보통 4월부터 본격적인 유행이 시작되는데 잠복기가 30일 정도임을 고려할 때 2월 말~3월 초부터 만성간질환자나 동남아 등 유행지역 장기 체류자 등 고위험군은 A형간염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간 질환이 있는 10~30대와 개발도상국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소아는 A형간염백신을 접종반도록 권고하면서 A형간염이 오염된 음식물로 전파되므로 철저한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과 국내 및 해외여행 시, 날음식 섭취를 삼가고 반드시 끓인 음식을 섭취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해 A형간염국제자문회의('09.10.) 및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연구용역 완료('09.12.) 결과에 따라 향후 2011년부터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A형간염을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며,

또한 2011년부터 A형간염을 현행 지정전염병에서 제1군전염병으로 변경하여 기존 표본의료기관에서의 신고를 전체 발생 환자 신고로 확대하는 한편, 발생 시, 역학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담당자 권준욱 담당부서 질병관리본부

◎ 음식을 빨리 먹으면 비만해진다? YES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비만에 대한 정보 및 인터넷, 서적 등에 만연하고 있는 잘못된 비만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기 위해 ‘비만바로알기’ 책자를 개발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 동 책자는 비만관련 정보와 비만정보바로잡기 60선으로 구성되었다.

- 비만관련 정보는 비만의 정의, 원인, 유발되는 질병, 진단방법, 식사요법, 운동치료, 행동수정요법, 약물치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 비만정보바로잡기 60선은 인터넷, 서적 등에 제공되는 정보들 중 60개를 선정하여 의학적 평가 및 과학적 근거여부를 판단하여 잘못된 정보여부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만관련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는 가운데,

○ 비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만에 대한 유해한 정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올바른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성장저하, 질병발생, 학습능력저하 등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올바른 지식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비만바로잡기 60선은 서적, 인터넷(카페, 지식사이트, 다이어트보조식품)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질문내용 → 잘못된점 → 의학적설명 → 결과정리 → 근거여부평가 → 시행권유여부 → 참고문헌」의 내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 서적 67권, 인터넷 1,463건 분석

- 선정된 정보는 의학·영양·신체활동 분야의 전문가 12명이 평가하고, 관련학회 자문을 통해 보완하였으며, 게재빈도 및 평가위원들이 중요도가 높은 정보라고 판단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60개가 선정되었다.

- 주요 정보내용은 ‘비만을 치료하면 골다공증이 생기는지, 음식을 빨리 먹으면 더 비만해지는지,

깊게 숨을 쉬면 내장지방이 줄어드는지, 저녁을 굶을수록 비만예방에 좋은지, 금연이 살이 찌 위험이 높은지, 지방흡입술로 한번에 체중을 줄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 한편 정부는, 동 자료를 책자와 CD로 개발하였으며 전국 253개 보건소에 보급하여 지역주민에게 비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보건정보시스템 및 e-건강다이어리에 탑재하여 온라인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임〉 관련 통계

◇ '08 국민건강영양조사

- 성인의 연간 체중조절 시도 경험율: 56.4% (남:53.1%, 여자:59.6%)

◇ '08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청소년 월간 체중감소 시도율: 30.3%(남:22.4%, 여:39.2%)
- 청소년의 월간 부적절한 체중감소 경험율: 18.3%(남:13.4%, 여:21.4%)
- 정상체중 학생이 과체중비만이라고 응답한 신체이미지 왜곡인지율:29.8% (남:24.1%, 여:35.9%)

담당자 김정숙 담당부서 건강정책과